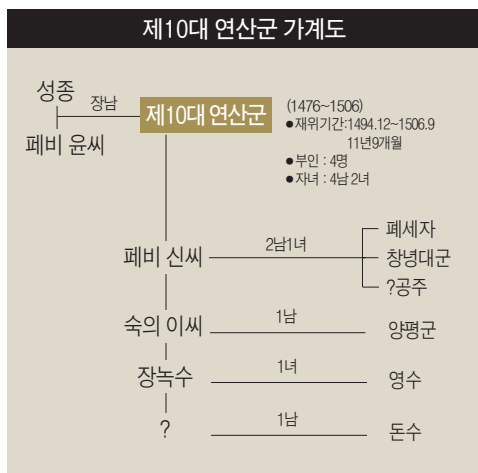


# 척불 일삼던 광기의 왕...업보 탓에 더 그늘진 무덤가



10대 연산군-연산군묘

연산군 1476~1506(31세)  
재위 1494.12(19세)~1506.9(31세)



연산군묘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최고의 법문은 죽음이러는데, 그의 무덤 앞에서 어떤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 이미 백골이 진토 된 마당이라 두렵지는 않다. 그와 동시대를 살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부끄러운 듯 조가울 햇살을 손등으로 가리며 그를 만나러 간다. 이정표가 없어 다섯 번이나 물어서 겨우 주춧돌 구석에 자리한 연산의 묘를 찾을 수 있었다.



쓸쓸히 서 있는 비문.

학술연구와 취재, 그리고 특별관람 신청자에 한하여 공개하던 연산군묘가 2006년 7월 11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전면 공개되었다. 우리 영화사상 최대의 관객을 끌어 모았던 '왕의 남자'가 개봉에 한 몫을 했는지.

폐주이기에 능이 아니라 묘라는 이름으로 지하에 묻혀있다. 유배지 강화도 교동에서 의문의 병사한 연산은 사망 7년 후 부인 신씨가 중종에게 간청하여 이곳 방학동으로 이장했다(1513년). 중종은 죽은 형을 위해 공과 쌀 100석, 면포 150필, 정포 100필, 참기름 2석 등을 하사하여 이장을 도왔다.

도봉산 자락 방학동 골짜기 잡초에 묻혀있던 연산군묘는 봉분이 훼손되고 망주석과 문인석은 쓰러져 있었으며 비석의 글씨는 문개져 있었다고 산책 나온 노인이 증언한다. 한 마디로 폐허나 다름없었다. 1980년대까지 그랬다.

묘 아래 마을은 800여 년 전부터 파평 윤씨 씨족마을이었다. 묘 앞에는 우람하게 서 있는 8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노거수 은행나무와 원당전(약수터)이 있다. 예전부터 마을이 가까이 있었으나 개구쟁이 아이들도 무서워서 연산군 무덤 근처에는 가지 않았었다 한다.

이러한 연산군묘가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62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청이 비공개로 관리해오다

## 승과폐지 등 불교 능멸의 절정기 승려 강제 환속·사찰 토지 몰수도 중종반정 후 유배지서 독살 당해

가 작년 여름 전면 개방했다. 500여 년 동안 조야에 묻혀있던 연산군묘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왔다.

그는 재위 중 무오사화·갑자사화를 일으켜 사림파를 비롯한 문신들을 대거 처형하고 연관 제도를 크게 축소했다. 당시 사대부들의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거듭하다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

그가 그토록 광포하고 난잡한 성품을 가지게 된 동기를 주로 생모를 잃은 사실에서 찾으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실록 <연산군일기>에는, 그는 원래 시기심이 많고 모진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자질이 총명하지 못한 위인이어서 문리에 어둡고 사무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정세력에 의해 편찬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산은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남겼다. 실록에 전하는 것만 130편이다. 폐위되자 그의 시집과 문집은 전부 불태워졌다. 섬세한 시심을 가진 인간과 폭군은 쉽게 연결이 안 된다. 하기가 네로도 자칭 위대한 시인이자 했으니. 불타는 로마를 보며 광기어린 시를 읊어댔다.

연산군이 불교에 자행한 만행은 척불의 수준을 넘어 극악한 능멸이었다. 성균관·원각사 등을 주색장



주춧돌과 이웃하고 있는 소박한 규모의 연산군묘



연산군묘를 지키고 있는 문인석.

으로 만들고,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 교종의 본산인 흥덕사를 마구간으로 바꾸었다. 삼각산 각 사암에 살고 있는 스님들을 내쫓고 폐사로 만들었다. 성내의 비구니절을 헐어버리고 비구니를 궁중의 종으로 삼았다. 승려를 환속시켜 관노로 삼고 강제로 결혼 시키기까지 했다.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청에 넘겼다. 이성을 잃은 광기의 시대였다.

성종 때까지 그나마 남아있었던 승과도 폐지했다. 승과란 승려의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 검정고시다. 그것에 의해 승려의 신분, 자격, 승계를 부여받아 대사찰의 주지가 되는 제도이다. 고려 광종 때 시작되어 고려 왕조 내내 유지되었고 조선

조 태종, 성종의 척불 때에도 명맥은 유지되었다. 승과와 폐지로 불교의 존재성,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불교의 암흑현지가 된 것이다. 또한 인간의 국문투서사건을 계기로 한글 사용을 엄금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506년(연산군 12) 9월 성희안·박원종·유순정 등의 주도로 연산군 폐출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이 옹립되니 곧 중종반정이다.

연산군의 묘는 능이란 이름을 갖지 못하고 초라하게 '연산군지묘(燕山君之墓)'라는 비석이 무덤 앞에

있을 뿐, 아무런 장식도 없다. 정자각, 장군석, 혼유석, 병풍석이 없다. 무덤을 둘러싼 곡장은 근년에 설치했다. 봉분은 탈모중 걸린 머리처럼 잔디마저 들성등성하다. 악행의 업보로 잔디가 자라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보니 늘어진 노송 가지가 그늘을 만들고 있다. 하루 중 별이 뜨는 시간은 아침녘뿐이다. 가지를 칠 계획은 없는가보다. 그늘진 언덕에서 오래오래 누워있을 운명이다. 강화도 교동 위리안치된 곳은 이보다 더했다. 집은 몹시 좁고 3m 떨어진 사방을 가시 울타리로 막아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음식 구멍만 열어 밥을 넣어주었다. 유배된 지 두 달 만에 서른한 살 연산군은 죽었다. 추운 겨울인데 학질에 걸려서 죽었노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살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연산의 아들 네 명 모두 폐위 후 중종1년(1506년) 9월 24일 사사(賜死)되었다. 이것은 중종의 뜻이 아니었다. 어린 조카들이 불쌍했다. 그러나 반정세력은 차후에 있을 수도 있는 싹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의 처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황 등은 나이가 모두 어리고 연약하니 차마 처단하지 못하겠다'라고 중종이 버티었으나, 반정세력은 단호하게 인금을 협박했다. '우리의 뜻은 정해졌으니 차마 못하겠다고 하시면 아니되옵나이다'라고. 그들에 의해 옹립된 왕으로서의 역부족이었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 연산군묘는

사적 362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 77번지. 10대 연산군과 왕비인 거창군부인 신씨(1472~1537). 궁인 조씨, 사위와 딸의 무덤이 있다. 역사의 증인이 없다면 오묘한 가족묘이다. 연산군의 딸이 능성 구석 집안으로 시집갔는데 사위가 구문경이다. 연산군이 누워 있는 묘역은 능성 구석 선영이다. 연산은 사는데 선영에 묻혀있는 셈이다. 왕릉의 능역 규모는 40~50만평이 예사인데 여긴 4200여 평으로 초췌하다.

역사의 교훈을 위해 세세한 안내를 곁들인다. 입장 시간 : 하절기 (3월~10월) 09:00~17:30 동절기 (11월~2월) 09:00~16:30 정기휴일(매주 월요일) 모든 문화제는 월요일이 정기휴일이다) 능이 아니라서 입장료도 없다.

-교통: 1호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로 나와 1161번, 1144번 버스로 30분. 4호선 선문역 2번 출구로 나와서 130번 버스로 40분 소요.

##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

##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탈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최고의 선물

방한용부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

● 가격 : 10,000원

지압감상

발명특허41435  
● 가격 : 10,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INTEGRITY N.AVER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 삼문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신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빛다불교점 054)655-2525